

사진이야기 - 장대군

- [Tag](#)
- [Media Log](#)
- [Location Log](#)
- [Guest Book](#)
- [Admin](#)
- [Write](#)

· [Google 광고](#) ·

[EBS방송](#)

[초등영어회화](#)

[EBS교과서](#)



[광우병방송] '지식채널e' 방송불가 편지를 맞다.

2008/05/15 14:36 in [M/방송](#)

[홈페이지구축 웹사이트](#)

2년간 호스팅 유지보수 전자카탈록 무료 방문상담. 홈페이지구축

www.websight.co.kr

[쉬운영어 로제타월드](#)

영어 New버전3 출시! 영어 모국어습득방식/대화참여학습.

www.Rosettaworld.co.kr

[서울현대전문학교 수시1차](#)

아동교육과/사회복지과/바리스타/ 호텔경영/호텔조리/제과제빵과 외

www.hyundai.ac.kr

[Access 업무 전산화 ERP](#)

맞춤형 프로그램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해드립니다. www.kzeno.com

[해피한교육 초중고](#)

문제은행 중심 운영, 원격관리, 피드백

www.edusite.co.kr

[타임스 영어정책](#)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사 양성.

www.timestesol.com

[국민대학교 일반대](#)

2008학년도 후기

~05.23(금)

gds.kookmin.ac.kr

[일일공부 아이템풀](#)

생활 영어 공부. 자료 제공. www.gkitempool.com

먼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지식채널e의 담당PD 김진혁PD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 개인적으로 눈인사만 주고 받은 PD이긴 하지만 바른 생각과 행동을 지향하는 모습을 지켜보 모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지식채널e라는 프로의 한 팬으로 오늘 아침 사내게시판에 올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가 이런식으로 역행하고 언론을 보수로 외압과 통제로 흘러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보시기 전에 EBS 방송사가 방송한 '지식채널e' [17년후, 인간광우병] 방송을 드립니다. 이미 보신 분은 동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 방송을 잘 보셨는지요. 또, 보신 분들은 나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또 시청자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위 방송이 방송 사실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어느시대의 어떤 교육에 대한 방송을 보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큰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래 김진혁PD가 언급하는 것 처럼 어제와 그제 지식채널e에서는 영국의 광우병과 관련한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전한 인식의 매개체로 생각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 보다 현실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정부의 협상과 강 비교와 검토,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할 수 있는 교훈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할 수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영국의 사례와 사실을 근거로 두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일이: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듯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하자는 취지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마땅합니다만 우리의 정부나 EBS의 경영진은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대처를 한 것 럽다는 것을 밝힙니다.

EBS는 2008년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외적, 내적으로 교육 2.0시대에 걸맞는 방송을 하겠다 있습니다.

아래는 2008년도 EBS 경영지표('2.0 교육의 길잡이 EBS')를 옮깁니다. 여기서 2.0교육이라 함은 웹 2.0을 표방한 혁신적인 방식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

- '2.0 교육의 길잡이 EBS' -

시대적 배경

지식정보화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는 교육의 기본 틀을, 저
맞는 자율, 경쟁, 수월성, 창의성, 다양성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 대

2008년도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로 예상되며, 교육수요자인
기관들은 새 정부에 교육문제를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예상.

- 사교육비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국민총생산의 3.95%).
- 조기유학생 3만명, 해외유학 및 연수비 지출액 52억 달러 상회.
- 공교육 붕괴현상 심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만 최고조.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배려 필요성 점증.

한편,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있어서 웹2.0의 핵심 개념인 '개방·참여·공유'의 관점이 투
새로운 시대정신이 메가 트렌드로 급속하게 자리 잡을 전망이며 최종목표는 경쟁력 있는
있음.

2.0 교육에 따른 변화의 흐름

교육주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변화

- 수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수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
- 수용자들의 창의적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그들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공유를
창출하는 구조.

교육공간: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

- 기존의 교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교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
한계.
- 유무선 인터넷과 오프라인 상에서 개별학습자가 주도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유비쿼터스

교육내용: 기존의 학제적 구분을 넘어서는 지식의 대통합

- 기존의 서로 다른 학문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장르/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한계.
-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방법론과 이론을 통해 기존의 지식체
있는 '융합 혹은 대통합' 방향으로 전환.

2.0 교육을 위해 EBS는 무엇을 할 것인가?

수용자 중심주의

- 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철저히 수용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서비스 할 수 있어야 함.
- 열린 마음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 정비하고, 시대적
주도 할 수 있어야 함.

신규 플랫폼 진출

- 교육공간의 확장 차원에서 신규 플랫폼 진출을 통한 콘텐츠 유통경로를 더욱 다각화할
우리 콘텐츠 DB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하여 인프라와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
- 방송, 웹사이트, IPTV 등 우리의 다양한 플랫폼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

혁신과 소통

- 시청자 중심주의를 구현하고, 또 디지털 시대 방송융합 및 점차 가시화 되어가는 방송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 및 인력운용 형태 등 경영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혁

역량결집 필요.

- 채널경쟁력 확보와 공사의 존재의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혁신은 우리의 생존과 위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 공사 전 구성원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책방향의 공유가 필수불가결한 바, 이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것임.

EBS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국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EBS는 녹색칠판에서 입시용 강의만 하는 방송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인 작은 수익사업(출판, 광고)이 조금 늘어가면 외부의 압박이 거세게 몰아친 것도 사실입니다. EBS의 주인은 EBS방송국의 직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방송불가가 되어버린 지식채널e - 17년후 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과연 E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원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만약 방송불가의 힘이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나왔다면 방송권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방송불가를 하고 경영진의 입장이다,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정말 세상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EBS 사내(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지식채널e 김진혁PD의 글을 옮겼습니다.

시청자인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채널e 담당pd 김진혁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식채널e 금주 방송분 중 한편인 '17년 후'를 오늘부터 지상파와 플러스에서 모두 내리게

'17년 후'는 현재 가장 예민한 이슈인 '광우병'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민한 내용인 만큼 현재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협정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고, 과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이유는 EBS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여건과, 지식채널e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자기검열을 통해 제작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메시지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영국의 잘못을 거울 삼아 안전하다고 장담 말고 미수언론에서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얘기하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광우병' 관련 아이템이란 이유로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이 된 내용

처음엔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감사원 내용인지 궁금하다며 감사팀으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 쪽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것이 의아해서 팀장님을 통해 어떤 이광우병 관련 내용이 민감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팀장님을 통해서 오늘부터 '17년 후'를 내리라는 본부장님 지시가 있었다는 이미 이틀이나 방송이 됐고,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퍼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많이 시청하고, 개인 블로그에 퍼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팀장님과 함께 본부장님을 찾아뵙고 방송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 여쭙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사장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사장님께서서는 EBS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서 결정하신거냐고 여쭙봤습니다. 부사장님께서서는 본인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EBS '경영

이미 이틀이나 방송이 됐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져나간 내용을 한참이 지나서야 내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결국 내용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아이템'이란 이유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ebs가 가지고 있는 채널파워가 부족하여 경영진이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었다고 해도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정권에게 보일 어떠한 '명분'이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주로 보는 플러스에서만 내리저도 거절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여쭙 봤습니다. 지식채널e 방송이 갑자기 누락되면 분명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압'을 받았다는 '오해'를 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말이죠. 어쨌든 굵어 부스럼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께서서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교육방송이란 '교육'적인 내용만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교육' 적인 내용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광우병을 다루는 것이 '비 교육'적인 것인가요?

만약 그것이 '비 교육'적이라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비 교육'적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데 대해서 다루는 것은 '비 교육적이다' 라고 하시면

EBS의 '교육'은 그저 '입시'라는 말이고, 입시 관련 내용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밖에는

그렇다면 저는 교육방송을 '입시'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광우병'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ebs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서 좋은 일일까요?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টে은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어떤 '수혜'를 주긴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보장이라도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직원 중 소수의 막연한 기대일 뿐인 건가요?

저는 일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는 EBS의 수많은 조직원 중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이 EBS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식채널e로 EBS 전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모두가 광우병 얘기를 할 때, 아니 그 얘기가 어떤 얘기든 많은 사람들이 '국'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정권과의 친밀도 이전에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며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방송은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권력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

비록 당장은 연명해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방송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배님 여러분께 여쭙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내리는 것이 정말 EBS를 위한 길일까요?

이렇게 하면 EBS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EBS는 안 좋은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랐던 걸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BS의 공익적인 방송을 위해서 결정한 EBS의 경영진은 나름 '심사숙고'해서 결정 했다고 생각 그러나, 시청자들은 과연 받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더불어 경영진의 결정이 잘못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와 지식이 있는 프로그램을 EBS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은 EBS를 지켜주고 계신 '시청자'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외압이 들어오면 그냥 무디게 그 강압적인 힘을 받아 드리시는지요? 자신의 집에 누가 힘을 과시하면 그냥 물러나서 그러려니 하고 계신지요? 그냥 참고 견디면 그 힘을 과시한 사람이 물러설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EBS의 '공익'을 위해서 방송을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 과연 EBS의 '존재가치'는 어떻게 될지는 생각 해 본 적이 없는 처사라

이 글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생각하는 바를 적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BS 사장의 신년사 中

우리 EBS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임원과 직원, 노와 사의 일치된 비전과 그것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씨줄과 날줄이 잘 어우러져야 하듯, 우리 EBS도 임원과 직원, 직종과 직종, 노와 사가 슬기롭게 잘 어우러짐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랑스러운 EBS의 조직문화를 더욱 새롭게 세워 나아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풍파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뛰다.”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지금, 니체의 말처럼 제 가슴은 뛰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슴도 뛰고 있을 것입니다.

EBS 홈페이지 : <http://www.ebs.co.kr>
EBS 시청자 상담실 : 02-526-2000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66073> 

'M > 방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우병방송\] '지식채널e' 방송불가 편치를 맞다. \(25\)](#)
- [EBS - 명의, 당뇨는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 \(1\)](#)
- [100분 토론 왜 했을까? \(14\)](#)
- [봉준호 감독 "나도 무릎에 상처 받았다" \(8\)](#)
- [100살 된 빨강머리 앤, EBS에서 만나요 \(10\)](#)
- [EBS "극한 직업" 바다와 싸우는 대게잡이 어부들 \(0\)](#)
- [EBS '다큐 10' 영혼의 땅 티벳 \(2\)](#)
- [EBS '명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 한국인의 성인병 \(4\)](#)
- [EBS '한국영화특선' 신상옥 감독 추모전 \(8\)](#)

차마고도란 무엇인가? (4)

EBS 『리얼실험 프로젝트 X』 다량도 TV 끄기 (0)



Posted by monopiece

17년 후, EBS,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방송, 방송불가, 영국, 외압, 이명박, 이슈, 지식채널e, 총

Google 광고	음악방송	아동교육	지역인
까칠맨의 버럭질! 까칠하게 살고 싶진 않지만... agony00.tistory.com	Dama's World 박학다식, 얇은 지식으로 가늘고 길게~!! damasworld.tistory.com		
가네보 S라인 모두모두 예뻐지고.. 행복할래요 kanebomom.tistory.com	걷기 건강을 지켜주는 걷기 overbeyond.tistory.com		
Google 광고	마케팅교육	방송중계	인터넷

Trackback 9 Comment 25

Trackback : <http://monopiece.tistory.com/trackback/130>

1. Subject [\[PD수첩2탄\] 좋았습니다..](#)

Tracked from calm and brilliant life 2008/05/15 13:05

정말이지 칼을 갈았더군요..ㅋ 속은 시원했는데, 내용을 보며 정말 씩씩했습니다. 방송 미안.. "다루는"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것은 물론이고 도축과 유통 소고기도 대부분 무 적절한 근거가 된거 같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어린 송 용했다가 미국 시민단체의..

2. Subject [빛의생각의 생각](#)

Tracked from euii's me2DAY 2008/05/15 13:16

광우병내용 지식채널e 방송불가 처분되다

3. Subject [광우병 확률](#)

Tracked from 대나무정령의 선비관 2008/05/15 13:19

적보다 친구를 더욱 경계하라는 말이 있지요. '친구'로 가장하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자...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이 이미 있는데도 서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또 청원을 넣... 한 말을 넣으면서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입맛대로 '논리비틀기'를... 이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

4. Subject [EBS 지식채널e \[17년 후....인간광우병\]](#)

Tracked from Naerro :: 會者定離 :: 去者必返 :: 生者必滅 2008/05/15 14:09

외부의 압력으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EBS 지식채널e '17년 후...인간광우병 PD의 공개 서한도 있네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코리아에서 퍼왔습니다. 관련글 [map] - [강풀] 미친소릴레이

5. **Subject** [지식채널 방송 불가 사태에 관하여...](#)

Tracked from superhero 2008/05/15 14:5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다니... 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요즘이다. 광우 금이라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런게 아니었구나! 하고 단념할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한 줄로 아는 건지... 지금0

6. **Subject** [모노마토의 생각](#)

Tracked from monomato's me2DAY 2008/05/15 14:58 

이것이 쥐박이식 프레스 후렌들리 아주 굿이다 일본이든 어디든 이민을 서둘러야 할 5

7. **Subject** [농우의 생각](#)

Tracked from nongwoo's me2DAY 2008/05/15 15:04 

[지식채널e 금주 방송분 중 한편인 '17년 후'를 오늘부터 지상파와 플러스에서 모두 내; 겠지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 아닌가?

8. **Subject** [영화 \[브이 포 벤데타\] - 1.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Tracked from 언니네 미장원 2008/05/15 15:07 

원제: V for Vendetta, 감독 : 제임스 맥티그, 주연: 휴고 위빙, 나탈리 포트먼, 제작 : 워너; 여기 대한민국 2040년...완벽하게 통제된 미래사회.정부 지...

9. **Subject** [동성...의 생각](#)

Tracked from kiding's me2DAY 2008/05/15 15:11 

사진이야기 - 장대군 :: [광우병방송] '지식채널e' 방송불가 편치를 맞다. 아 씨발 지금이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5공으로 돌아가는거냐. 미친놈들.

1. [리카르도](#) 2008/05/15 13:12   

이런게 진정 언론 탄압인것을.. 조중동은 또 닥치고 있겠군요

- o  [monopiece](#) 2008/05/15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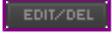
정작 프로그램 내용은 정부를 비방하거나 속고 있다던가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

2. [사춘기 소년](#) 2008/05/15 13:52   

에, 지식채널 언제나 볼 때 마다 눈을 땔 수 없었는데, 역시 이런 일을 겪고 마는군요. 인

- o  [monopiece](#) 2008/05/15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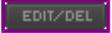
정말 애착을 가지신 분이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두번 생기고 계속 생기게 될 때 시청자의 입장에서 유감스런 일들
알아야 할 것 입니다.

3. [\(*'*\)달밤](#) 2008/05/15 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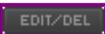
아놔, 정말 울화통이 터니지네요;;;ㅋㅋ

o  [monopiece](#) 2008/05/15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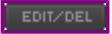
이번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4. [sandman](#) 2008/05/15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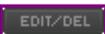
죄송스럽지만 포스트에 있는 PD분의 글은 어디에 올라와 있는 글인가요?
지식채널e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나오지를 않아서요.
정말 분노스러운 내용이라 확실한 출처를 알고 행동해야할 것 같아서요.

o  [monopiece](#) 2008/05/15 14:41  

지식채널e 17년후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난 후
EBS 직원(자유)게시판에 김진혁PD가 직접 적은 글을
옮긴 글 입니다.

5. [유안](#) 2008/05/15 14:45   

나라가 백석이 돼도 심하게 백석되는군요. 이 방송이 방송금지면 PD수첩 제작진은 당
처해야겠습니까?!

o  [monopiece](#) 2008/05/15 1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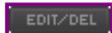
신기한 일은 백석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안되고,
안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6.   [리넨](#) 2008/05/15 14:49   

지식채널 매일 보고있는 프로그램인데(재방송은 안보지만)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참 기

7.  [디아스](#) 2008/05/15 14:53   

실망이네요 이비에스!

8. [유정무정](#) 2008/05/15 14:57   

언론학도 시절 학과방에 이런 글귀가 걸려져 있었고 우리는 종종 이 구호를 재미삼아..
입을 다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그대 언론인이여, 말하라'

9.  [리브홀릭](#) 2008/05/15 15:03   

안 그래도 EBS 지식채널e의 '17년후' 방송을 보고 관촬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레 꼬리를 내리고 마는군요. 짧으면서도 현재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이성적인 , 나간 방송인 것을...지금 내린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럴 때, 오히려 네티즌 들이 동영

10. **김석일** 2008/05/15 15:09

지식 채널 e 부끄럽지만 유일하게 ebs에서 챙겨보는 방송 입니다.
책도 사서 봤구요. 언제나 정말 몰랐던 좋은 내용 볼 수 있어서 짧지만 훌륭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며 시청하고 있었고 맨날 입시방송만 하는 줄 알았던 ebs라는 채널이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방송도 빌어먹을 무식한 정권 앞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리는군요.
좋은 것을 살리고 나쁜 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그 도리를 가르쳐야하는 교육방송조차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려 하다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

힘내세요!!!!

11. **C방새** 2008/05/15 15:12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EBS의 '지식채널e'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시청자로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7년후'의 방송내용은 언론이 해야할 의무 중에 하나인 정확한 정보전달을 한 것 뿐인
왜 방송금지가 되어야 하나요?
게다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한 일이라구요?

또 EBS 사장님께선 신년인사에서 '니체'까지 들먹이시면서 개품 잡으시더니
막상 불똥 튀라치니까 꼬리를 감추시네요~~~

에라이! 쌍!

12. [northfield vagabond](#) 2008/05/15 15:13

노무현 정부때는 언론과의 마찰은 상당히 심했지만 이 정도의 압력까지가 있었나 하는
그대로 'FACT'만 나열해 놓은 프로그램까지 중지시키다니...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국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13. **Fm 아무도 아니다** 2008/05/15 15:20

미친 세상입니다...

14. **훗** 2008/05/15 15:23

항상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이번일은 정말 어처구니없고 분노를 느낍니다.

15. **rainbow** 2008/05/15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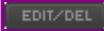
조용히 지켜보고..
그리고 묵묵히 지지하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건 고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언젠가 큰 힘이 되어 드릴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6.  [StudioEgo](#) 2008/05/15 15:30   

객관적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을 내리단요? 이제 말이 되는 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언론 통제를 한다면 노무현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에도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았건만 -
이번 정권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군요.

이거 완전 언론탄압이군요. 5,6공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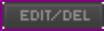
17. [예상한 일...](#) 2008/05/15 15:32   

이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나..? CEO출신의 대통령에....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야..뭐.. 경저
고 생각하고 있는걸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것일지도..음.. 경제발전따
를....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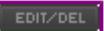
18. [bluesil](#) 2008/05/15 15:43   

우연히 글을 보고 확인이 필요해 내용이라고 생각돼, ebs에 문의를 했더니 오늘 방송(지
방송을 가지고 논의중이라 놀랍더군요.

올해는 다른 해 보다 쌀쌀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19.  [iwannasee](#) 2008/05/15 15:44   

이런 조치를 시대착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뀐 것을 그 분들은 아직 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  [러빙이](#) 2008/05/15 15:45   

아니 그냥 사실만 나열한거 갖고.... 도대체 요즘 나라가 어떻게 되가는건지..

Name

Password

http:// Homepage

only show to admin

◀ Prev 1 [2](#) [3](#) [4](#) [5](#) ... [113](#) Next ▶



사진과 커피, 여행, 음악, 영화...
by monopiece

Tag Cloud

- [사진](#)
- [EBS](#)
- [공연](#)
- [이명박](#)
- [음악](#)
- [방송](#)
- [블로그](#)
- [티스토리](#)
- [장대군](#)
- [EBS 스페이스](#)
- [다큐멘터리](#)
- [여행](#)
- [일본여행](#)
- [상상아트홀](#)
- [영화](#)

- [티스토리 초대장](#)
- [광고](#)
- [게임](#)
- [레이소다](#)
- [광우병](#)
- [사진가](#)
- [여행기](#)
- [사진전](#)
- [일본어](#)
- [한나라당](#)
- [김수철](#)
- [블랙홀](#)
- [정치](#)
- [KBS](#)
- [내한공연](#)



Recent Article

- [\[광우병방송\] '지식.. \(25\)](#)
- [EBS - 명의, 당뇨는.. \(1\)](#)
- [고양이와의 동거생.. \(6\)](#)
- [다이어트 어떻게 할.. \(16\)](#)
- [100분 토론 왜 했을.. \(14\)](#)

Recent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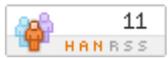
- [아니 그냥 사실만..](#)
- [이런 조치를 시대착..](#)
- [우연히 글을 보고..](#)
- [이정도는 예상하지..](#)
- [객관적으로 방송된..](#)

Recent Trackback

- [동성...의 생각](#)
- [영화 \[브이 포 벤데..](#)
- [농우의 생각](#)
- [모노마토의 생각](#)
- [지식e채널 방송 불..](#)



[Rss Feed](#)



이 글과 관련된 글들

[광우병방송] EBS '지식
2008年, 봄날의 오후 3시 |

복부를 가득 메운 난소 낭
Korean Healthlog |

우체국 민영화에 대한 생
총상금 490만원 UCC 공모

리뷰쓰고 책도 내고 10만
도서, 음반, DVD, 영화, 공

Notice

- [사진 찍어 드립니다.](#)
- [사진전시 공간 - 레..](#)
- [스킨 변경합니다.](#)
- [카테고리 추가 및..](#)
- [구글 광고를 달았습..](#)
- [RSS와 관련하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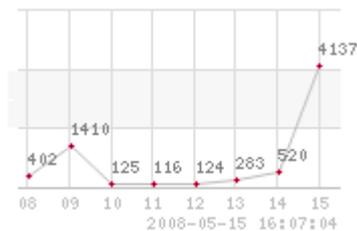
Category

- [발걸음 \(113\)](#)
- [사진 \(37\)](#)
- [생각 \(24\)](#)
- [M \(46\)](#)
- [여행 \(6\)](#)

My Link

- [0. English Version](#)
- [1. 레이소다 갤러리](#)
- [2. 개편? 중인 홈페이지..](#)
- [3. My mini City](#)
- [3M興業\(흥UP\)](#)

- [4명의 취미사진가](#)
- [Dope Entertainment](#)
- [helper09\(사진가\)](#)
- [zeppelin\(음악 이야기..\)](#)
- [나도원\(대중음악 평..\)](#)
- [남뽕\(게임 아티스트\)](#)
- [동지모임\(사진모임\)](#)
- [또자니\(컴퓨터천재?\)](#)
- [똥막대기\(사진가\)](#)
- [랜디\(프로그래머\)](#)
- [루피너스\(프로그래머\)](#)
- [리브홀릭\(동대문구..\)](#)
- [미스터톤\(기자\)](#)
- [박우철\(사진가\)](#)
- [브선생](#)
- [서프라이즈](#)
- [수지\(엄마라 불리우..\)](#)
- [썬바람\(기자\)](#)
- [연필소년](#)
- [이야기님의 홈페이지](#)
- [제롬\(사진가\)](#)
- [좀모씨 - 죽은자들..](#)
- [차\(茶\)와 사람\(人\)..](#)
- [초하유지엄.넷\(그림..\)](#)
- [칼라사진\(사진가\)](#)
- [포도밭\(공연장 주인\)](#)



 [티스토리 가입하기](#)

monopiece's Blog is powered by [Daum](#) / Designed by [Tistory](#)